

보도 자료

역사적 현실, 이상과 새로운 소리 찾기

2020년 가을 베를린 오라토리오 합창단은 리차드 스트라우스와 월터 브라운펠스의 거의 드물게 듣게되는 합창곡을 소생시킨다. 또한 이 연주는 스트라우스가 시작했다가 그만 둔, 현재 완성된 "Besinnung"이 세계 초연을 가질 것이다.

베를린. 2020년 11월 22일, 베를린 필하모니에서 독특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유럽이 20세기에 경험한 격변은 음악적으로 반영된다. 이에 대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75년 전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것과 30년 전 독일 통일이 있었다는 것이다.

Richard Strauss는 1903년에 애국적인 발라드 "Taillefer"(Ludwig Uhland)를 제국 시대의 요구 사항에 맞게 설정했다. 거의 반세기와 2차례의 세계 대전 후, 작업을 정지하고 고립된 생활을 하다가 그의 마지막 작품인 "Besinnung" (1949)을 작업했다. 헤르만 헤세 (Hermann Hesse)가 쓴 같은 이름의 시를 기반으로 한 이 작품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지휘자 겸 작곡가 Thomas Hennig는 Strauss 가족으로부터 이러한 스케치를 완료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세기 예술가 리차드 스트라우스 (Richard Strauß)의 작품이 늦게 완성되어

콘서트인 후반에는 월터 브라운펠스의 "Te Deum"(1922)이 오늘날 거의 공연되지 않는 곡이 연주된다. 유대인 가족 출신의 개신교인으로서 그는 제1차 세계 대전을 경험한 후

가톨릭교로 개종했다. 이 작품에서 그는 전쟁의 공포를 체험했던 현실과 의미에 대해 중요한

문제로 다루었다. "Te Deum"은 당시 110번의 공연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국가 사회

주의자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작곡가는 혐오에 빠졌다. 그의 작품은 망각에 빠졌다.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Konrad Adenauer는 브라운펠스에게 쾰른 음악 학교를 재건축하도록

베를린 오라토리오 합창단은 Thomas Hennig의 지시에 따라 Rodenkirchen Chamber Choir

(쾰른), Chamber Choir Fortis (상트 페테르부르크) 및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저녁을 조직한다. 이본느 프리들리 (소프라노)와 한스 조지 프리즈 (테너)의 솔로를 들을 수 있다.